

14기 필로핀 팡가시나탐 무빙스쿨의 기록



김혜지 , 이해진, 김민철, 양성민

전체 훈련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와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 14기 평가시난팀은
이번 무빙스쿨의 주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윤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천안의 사회적 기업 두 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무빙스쿨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빙스쿨 시작하기 전,
잠시 들린
"남산중앙시장" !!

조그만 수레에 커피를 파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10년 전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이 활발하진 않네

이 지역 주민만이 갖고 있는
'지혜'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렴하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는
남산중앙시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팡가시난팀이 집어든 것은?!
바로, 맛있는 호떡과 슬러시!



배도 채웠겠다
이제 "맛있는 국수집"으로 가볼까!!!

가는 길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센스!!





맛있는 국수집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의 꿈을, 지역 사회에는 책임 의식을”

맛있는 국수집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역 사회 또한 이 곳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의 지역 사회는 기업, 개인, 봉사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곳은 사회복지센터 ‘나비의 꿈’의
 지적 장애인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고용 창출형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나비의 꿈’은 여성 지적 장애인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모든 분들이 ‘맛있는 국수집’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MBC 나눔의 행복’에서도
 촬영을 하러 왔다.

이 중 민철은 단독 인터뷰도 하게 됐다.
 저희가 라온아띠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사회적기업을 탐방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대, **나비의 꿈**, 자존감, 마지막 꿈



필리핀 팀의 '350 ppm 캠페인' 관련 수칙인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는 민철과 성민.
참고로 국수의 양이 정말 많았는데,
다 먹은 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맛있는 국수집’의 CEO이시자 ‘**나비의 꿈**’의 김은희 원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와 맛있는 국수집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맛있는 국수집은 일자리 창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천안에만 3호점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윤이 많이 남는 줄 알지만 손익분기점을 거의 따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 이윤이 거의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적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가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다.

연대, **나비의 꿈**, 자존감, 마지막 꿈



여성 지적 장애인들이 사회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실감**을 겪는다고 한다. 보통 일 자리를 찾아도 3개월 넘게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비의 꿈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염색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거나 혹은 치킨을 쏘는 등의 소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게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와주시는 손님들 이 이들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서는 서비스업에 지적 장애인을 투입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제조업 쪽으로도 사업을 전개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인터뷰 끝~

언데, 나비의 꿈, 자존감, 마지막 꿈



여김 없이 팡가시난팀은 시내버스를 타고~
북카페 '산새'로 가는 길!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골아떨어진 성민이의 모습 😊



사회적 기업
북카페 '산새'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문화'라는 다리를 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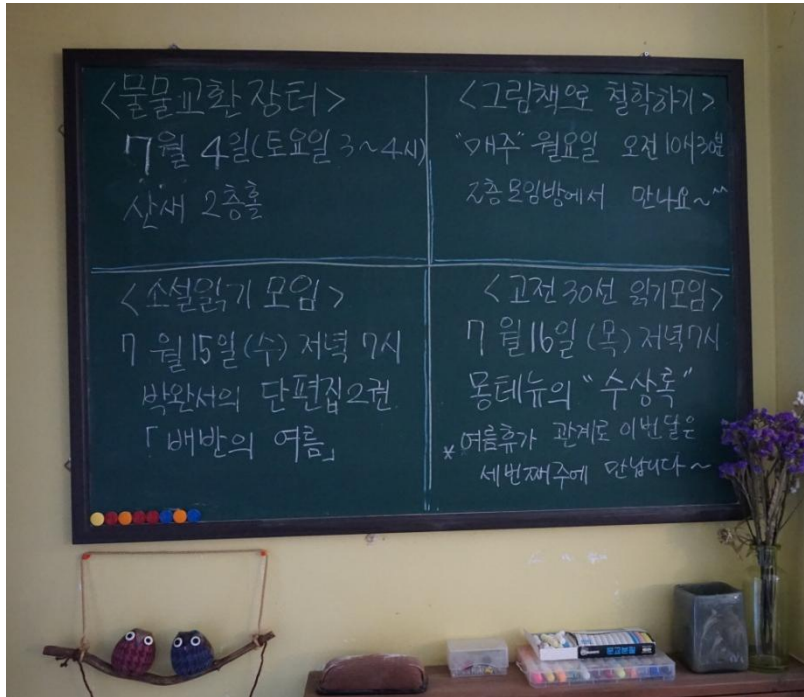


산새에서는 수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작은 책 읽기 모임이었는데, 점점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모임들이 꾸려졌다고 한다.

북카페 산새에는 산새가 직접 주관하는 모임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면 산새에서 다른 이웃들을 연결해주어 만들어진 모임도 있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산새지기님은 “모임을 유지하는 몇몇 사람들의 힘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산새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주고, 사람들은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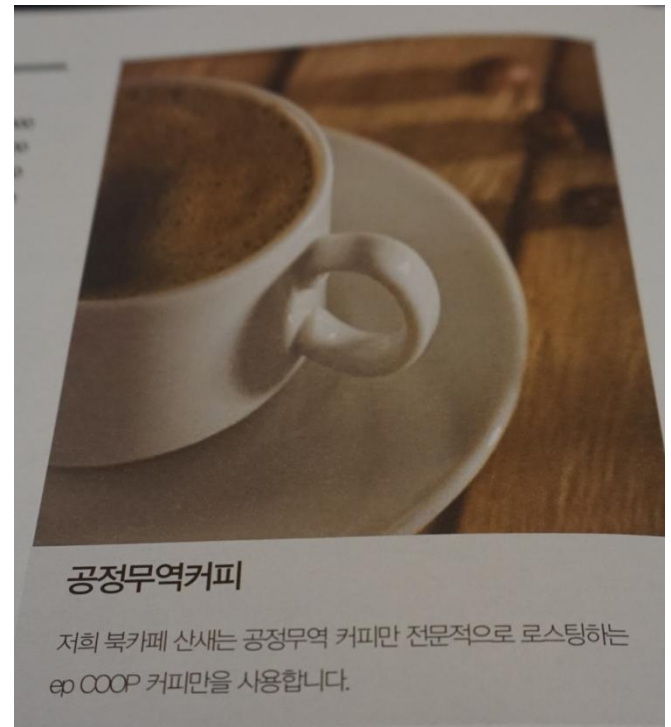
연결고리, 마을=지역, 지속가능

무빙스쿨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마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지리적인 개념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지, 과연 도시에서 마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우리는 산새지기님과 대화를 통해 의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산새지기님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으면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략) 산새라는 공간에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확장된) 마을의 형태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산새가 오래도록 지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산새가 마음의 고향, 정신의 고향이 되는 셈이다.

연결고리, 마을=지역, 지속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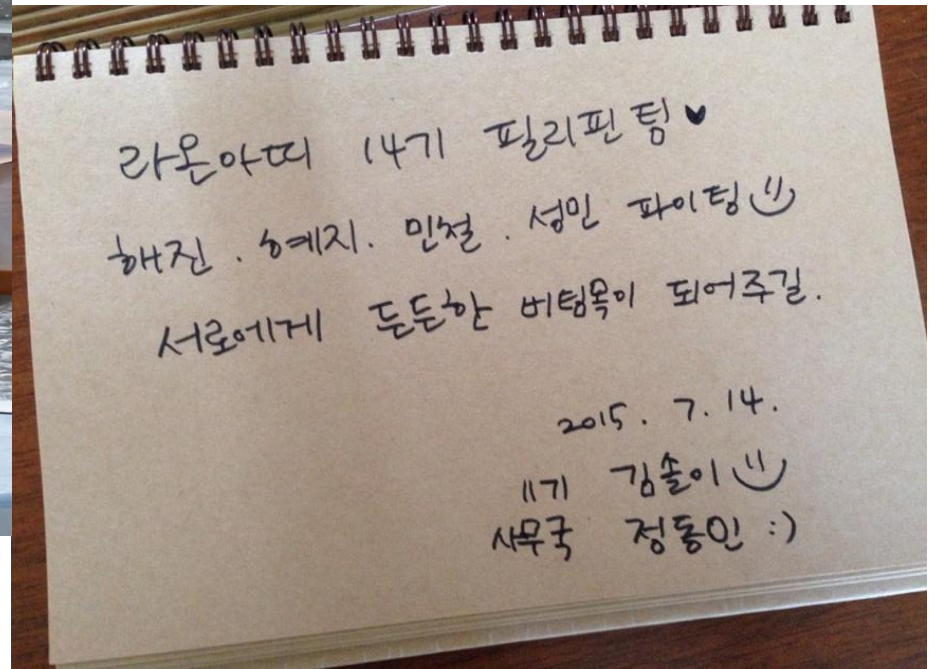
“커피는 누군가의 삶입니다”

북카페 산새는 공정무역 커피를 하고 식재료도 친환경적인 것만 사용한다고 한다. 산새지기님은 “산새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커피,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것이 곧 지구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곧 산새를 **지속**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덧붙였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함께 생각하는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연결고리, 마을=지역, **지속가능**



산재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사람과 사람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무엇이든지 지속가능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팡가시난팀을 응원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솔이 동반자님!**
 지친 팡가시난팀에게 단비 같은 간식을 선사하신 **동민 간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무	빙	스	쿨	로
마	무	리	하	며
필	리	핀	킹	의
느	깁	점	발	표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가 만난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계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껏 응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반대 개념으로 여겨지는
이윤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나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혜지

전체 훈련 동안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배운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되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YMCA와 같은 시민단체나 NGO단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빙스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한 **지구시민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온아씨의 생각이, 라온아씨의 가치가 제 삶에 온전히 녹아 내려 그것이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해진

천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직접 발로
움직이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남으로서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조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속성**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리핀에 가서도 그 곳 사람들과 처음에는 잘 조화롭지
못 하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팀원들과 천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사회적
기업인 '맛있는 국수집', '산새'를 방문한 일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듣고 나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을 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행 도중 핸드폰 없이 다녔지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의 일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과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머리로 배우기 보다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성민